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2006. 8. 정부·민간합동작업단



비전 2030, 분명한 실현방안이 있습니다 ----- 35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두가지 실현방안으로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비전 2030, 국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 41

비전 2030의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추진되며
2011년 이후의 추가 재원조달 방법은
국민 여러분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0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시급한 일은 위 아래가 한 마음이 되어 위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나라의 근본을 편안하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다.”

율곡 이이 : 율곡 전집

■ 아직 부족한 부분

지 표	순 위	우리나라	1 위 국
삶의 질('05)	41/60	5.3 점/10점	9.5 점(호주)
국가경쟁력(IMD, '05)	29/60	64.2 점/100점	100 점(미국)
공공사회지출('01, GDP대비 비율)	29/29	6.1 %	29.2 %(덴마크)
사회 응집력('05)	34/60	6.09 점/10점	8.93 점(싱가폴)
상대 빈곤율('00)	25/26	13.3 %	4.3 %(덴마크)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05)	52/60	4.0 점/10점	7.97 점(핀란드)
생산직 근로자 급여('03)	22/29	10.28 달러/시간	32.18 달러/시간(덴마크)
노사관계(IMD, '05)	60/60	4.0 점/10점	8.5 점(싱가폴)

우리 앞에 놓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

■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이런 추세로라면 2020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에 이를 전망입니다.

■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 기업, 소득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큼니다.

■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80년대 6~8%대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 중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0년대에는 2% 중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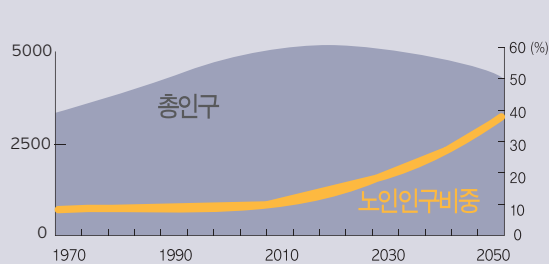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단절되고 일자리,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낡은 사회시스템도 고쳐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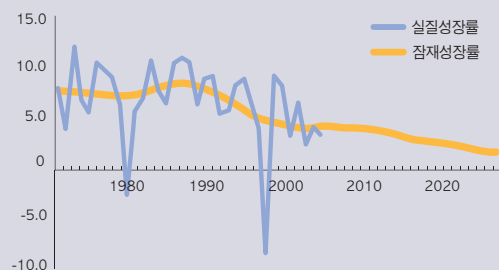
낡은 제도와 관행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해집단간 대립과 과도한 권리주장 등이 사회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 세계화에 대응하고 BRICs의 급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국가간의 거래이고 브라질, 중국 등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전망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후반,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GDP가 늘 어남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분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추세로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운 시 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동반성장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입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동전의 양면이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별도로 이루어졌던 두 정책을 이 제는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외 환 위 기 이 전		외 환 위 기 이 후
정부역할	성장에 집중	→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성장전략	양적 투입위주, 불균형성장, 정부 주도	→	혁신주도형, 균형성장, 시장 주도
복지전략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조적 복지	→	정부의 역할 제고, 기회 확대·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운용	물적 자본 중심	→	사람 중심

■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국가는 희망이 없는 국가입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1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 조사('06.1. KDI) 결과 전문가의 97%, 일반국민의 94%가 국가의 장기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가의 비전 및 추진전략〉

국 가	비 전	추 진 전 략
일 본	A New Era of Dynam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의 선순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중 국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혁을 통한 성장의 질 개선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등
싱가포르	Dynamic Global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유연성 확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영 국	기회의 나라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 및 경쟁촉진 IT 인력양성, 직업훈련체제 개편

비전 2030, 우리의 미래전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줄곧 생각해 왔으며 이러한 긴 시간적 수평선 위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온 사람들이다.”

에드워드 밴필드(하버드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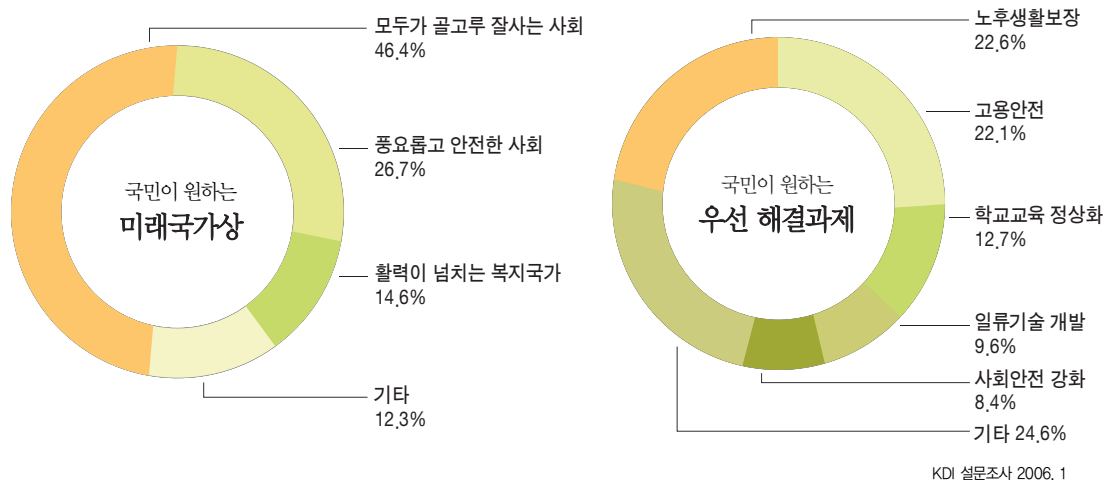
비전 2030 추진경위

■ 오랜 기간 준비해왔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래대비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역동과 기회의 한국',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장기비전에 대하여 논의해 왔으며, 그동안의 논의 결과들을 종합하고 보다 실천력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비전 2030 수립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30여 차례의 토론회와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미래상과 우선해결과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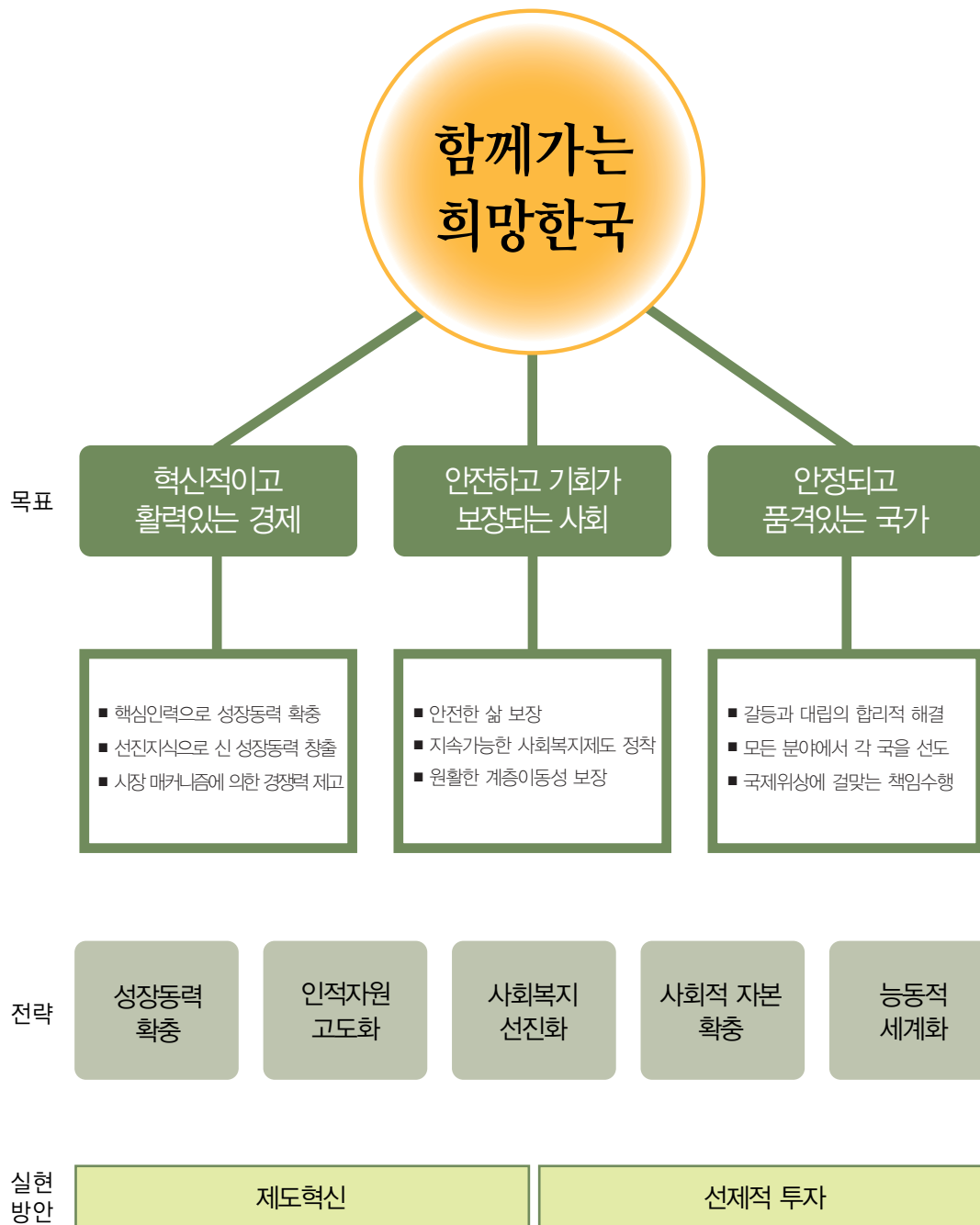
■ 최초로 실천력 있는 국가 장기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1년 이상의 본격적인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재정전략이 뒷받침된 실천력있는 국가 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전 2030 주요 추진과정

2005년 7월	KDI, 조세연구원,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작업반 구성
2005년 8월 이후	30여 차례의 토론회, 5차례의 세미나와 설문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4차례에 걸친 범부처적 회의를 통해 협의·조정
2006년 8월	정부·민간합동으로 작업한 최초의 장기비전과 재정전략인 「비전 2030」(시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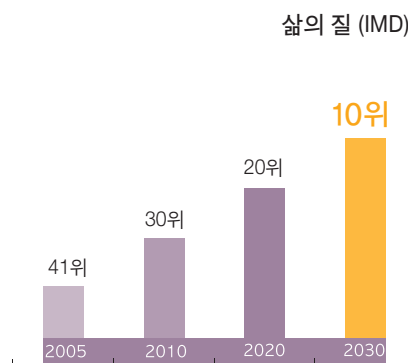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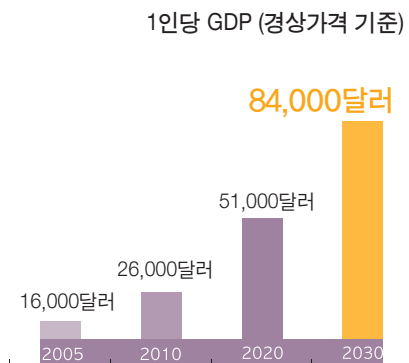
비전 2030 체계도



2030년,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은 아니지만 그것은 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입니다. 우리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김구 : 나의 소원



2010년대

선진국 진입

- 1인당GDP : 5만1천달러(2020)
- 국가경쟁력 : 15위
- 삶의 질 : 20위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게 됩니다.

2020년대

세계 일류국가

- 1인당GDP : 8만4천달러(2030)
- 국가경쟁력 : 10위
- 삶의 질 : 10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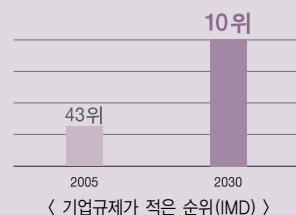
기업인/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2030년 존경받는 10대 기업인에 선정된 송동훈씨 (53세, 남)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7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규제와 노사불안 없이 맘껏 일하게 된 것이 성공포인트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을 맺어 그 기술을 잘 운용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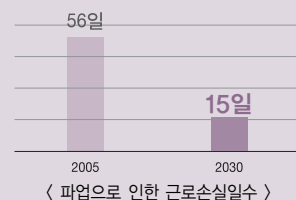
- 기업환경 :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기업규제가 적은 사회
- 협력적 노사관계 :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 산학연계 : 대학·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사회
- 기술향상 : 우리상품과 기술이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회
- 대·중소기업 상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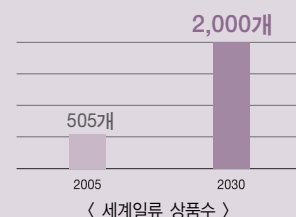
기업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대폭 줄어듭니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우리상품과 기술이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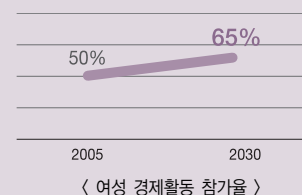
여성/출산과 육아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A기업 유럽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최영진(여, 32세)씨는 올해 결혼생활 5년차 맞벌이 주부이다. 아이는 4살과 2살.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아이는 회사 2층에 있는 사내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정부에서 60% 이상 비용을 지원해주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이 키우는데 큰 부담이 없어 셋째를 낳을까 생각 중이라며 영진씨는 활짝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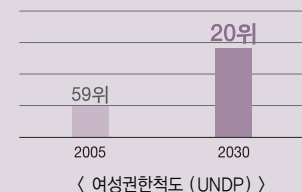
- 사회생활 :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여성권한이 신장된 사회
- 임신·출산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보장되는 사회
- 육아 : 양육비 걱정 없이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재취업 : 출산 및 육아 이후에도 재취업이 보장되는 사회
- 성평등 :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차별없이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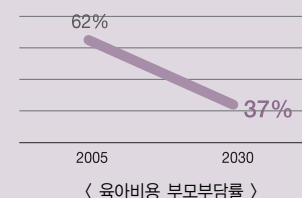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우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녀차별이 없어지고
여성의 권한도 대폭 올라갑니다.



육아비용에 대한 부모부담을 크게 덜게되어
자녀양육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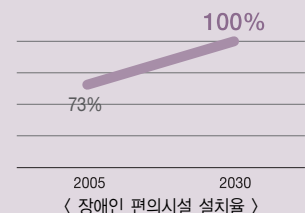
장애인/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옵니다

김희수씨(43세, 여)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들 철이를 키우고 있다. 철이는 소아마비를 가진 2급 장애인이다. 하지만 장애가 그에게 큰 어려움은 아니다. 휠체어 경사로, 핸드레일, 전용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은 없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월급도 동료들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더욱 안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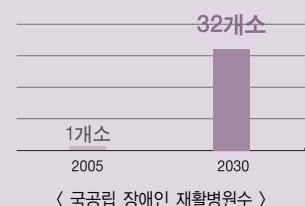
- 소득보장 :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사회
- 고용보장 :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한 사회
- 건강보장 :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로 자립역량이 배양되는 사회
- 이동권보장 : 이동과 정보이용에 있어 차별과 불편이 없는 사회
- 문화생활 :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맞춤형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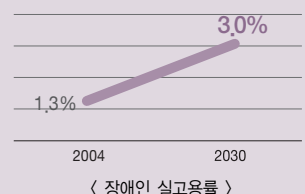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보장됩니다.



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이 크게 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장애인의 고용율이 크게 올라 취업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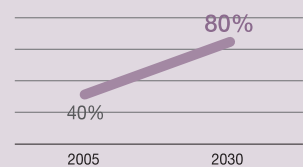
농어업인/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이 펼쳐집니다

농민후계자 박일용씨(36세, 남)는 귀농자를 위한 워크샵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2030년 농촌은 아이들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도시와 다를 바 없이 수준이 높아져 귀농 희망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안되면 농사나 짓지!” 하고 쉽게 말하지만 농업도 전문화, 규모화되어 빈 손으로 덤벼서 될 일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한다.

- 소득보장 :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사회
- 생활환경 : 도로·주택·상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어촌
- 복지환경 : 교육·문화·복지 확충으로 농어민이 살기좋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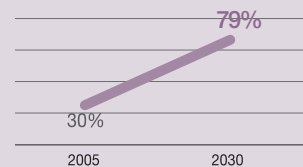
도로, 주택, 상수도 등 농어촌 생활기반시설이
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 됩니다.



〈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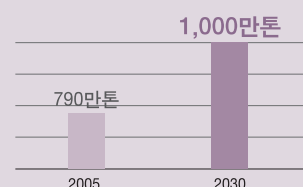
대규모의 전문화된 영농을 통하여
농민소득이 증대되고
농업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 쌀 전업농의 쌀 생산 비율 〉



연근해 어업의 수산물 어획량이 늘어
고소득 어촌이 만들어 집니다.



〈 수산자원량 〉

가정과 직장에서
보람을 찾는 중·장년기

평생학습
실업급여, 실업자 훈련
정년 조정, 임금피크제
산전후 휴가, 불임부부 지원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유지되는 노년기

연금수급
노인요양보호
간병/재활서비스
고령자 재취업



전생애에 걸쳐
기본적으로 누리게 될 공공서비스

건강보험

먹거리안전

자원봉사

생활체육

문화예술

비전 2030, 분명한 실현방안이 있습니다

“한국이 따를 만한 검증된 모형은 없다. 타국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자국만의 새로운 모형을 찾아내고 재구성함으로써 자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앨빈 토플러 :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비전달성을 위한 두가지 실현방안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비전 2030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선진국에 맞게 바꿔 나가야 무한경쟁에서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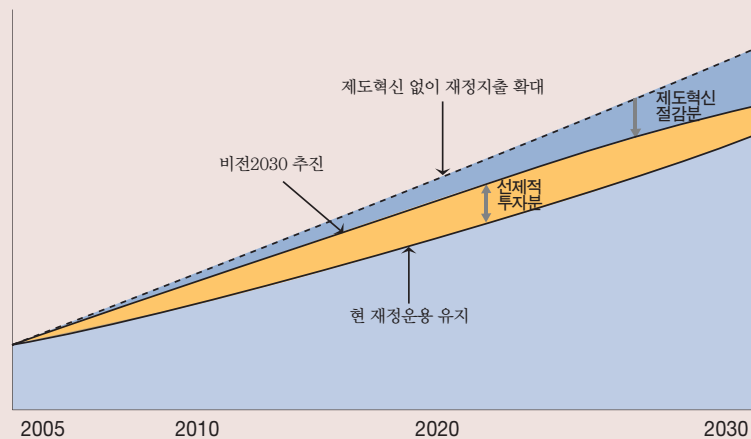
제도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 투자를 늘려도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에 머물고 재정부담도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곳에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재정운영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곳에 사전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해 특히 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중점 투자해야 합니다.

총지출



비전 2030 추진시 재정규모 모습



비전 2030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할까?
그동안 전문가와의 토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200여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50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선진화 (18개)

19. 국민·직역연금개혁
20. 건강보험 개혁
2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2. 의료급여제도 개편
23. 비정규직 대책
24.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25.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26. 부동산 가격 안정화
27. 영세 자영업자 대책

28. 방과 후 활동 확대
29. 보육 서비스 확대
30. 식품안전 보장 강화
3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32.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33. 주거복지 확충
34.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35.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강화
36. 농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자본 확충 (8개)

37.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38. 사법제도 개혁
39.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40. 지방행정체제 개편
41.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42. 국방개혁
43. 전자정부 구현
44.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능동적 세계화 (6개)

45. FTA 체결 확대
46.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47. 외국인력정책 마련
48.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49. ODA 규모 확대
50. 통일 인프라 구축

비전 2030, 국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며, 비전이 없는 실행은 시간만 보내게 한다. 비전이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조엘 바커(미래학자)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추진

■ 향후 5년간은 제도혁신에 주력합니다

비전2030 추진의 초기 단계에는 국민연금 개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 등 제도혁신에 집중하므로 추가 소요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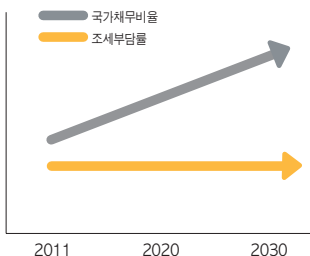
■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010년까지의 추가 소요는 정부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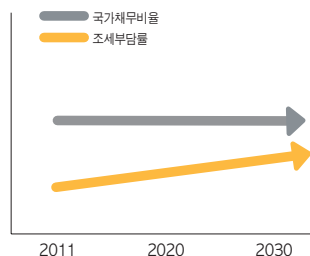
2011년 이후의 재원대책은 국민과 함께 논의

■ 적정 복지수준과 재원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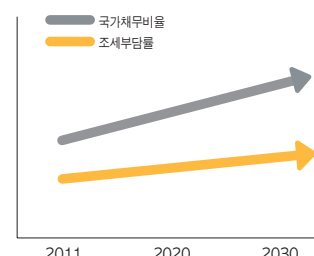
복지수준에 따라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재원 조달방안에는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예: 일본), 조세로 충당하는 방안(예: 뉴질랜드), 국채와 조세로 나누어 조달하는 방안(예: 통일 이후 독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 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현세대와 다음세대간의 부담문제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국채로 조달시



조세로 충당시



국채와 조세로 분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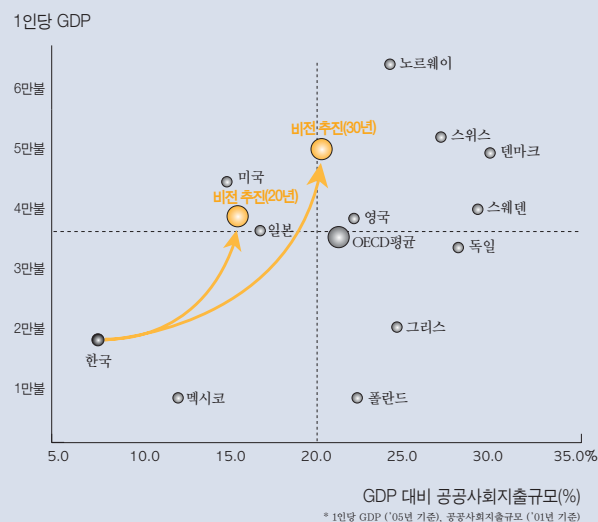
비전 2030, 우리의 선택

■ 비전 2030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장률이 낮아지고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한 희망없는 사회, 건강걱정·연금걱정 등으로 노후가 불안한 사회, 과도한 육아 부담·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회,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재취업도 힘든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전 2030, 동반성장으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 달성됩니다

비전 2030은 앞으로 25년뒤에 성장과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일류국가에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 1인당 GDP는 8만 4천 달러 (불변가격 기준 4만9천 달러)가 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은 2020년에는 현재의 미국 수준으로, 2030년에는 현재의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2030년 한국의 모습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장기전략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희망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힘과 뜻을 모으면 못 해낼 일이 없는 우리국민입니다.

비전 2030은 또 한번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성공시켜야 합니다.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